

대학생과 중년성인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희망,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검증*

송 현 심

성 승 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과 중년기 성인의 삶의 의미의 두 하위요인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각각의 기능과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희망과 의미발견이 갖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의미추구, 의미발견, 희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500명, 중년성인 500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 희망,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연구모형에 있어서는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직접경로를 제외한 연구모형이 두 집단 모두에서 더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매개경로는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과 의미발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집단의 변인 간 차이검증 결과 의미발견과 주관적 안녕감 전체는 중년성인이,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하위요인은 대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검증 결과, 의미추구가 희망과 의미발견에 미치는 영향, 희망이 의미발견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및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삶의 의미, 의미추구, 의미발견, 희망, 주관적 안녕감

* 본 연구는 송현심(2017)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대학생과 중년성인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희망,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검증’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성승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70길 8

Tel : 02-890-2834, E-mail : blueair@empal.com

최근 인간에 대한 불균형적인 관점을 바로 잡고 그동안 간과되어온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긍정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웰빙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행복’에 대한 관심이 활발해졌고, 웰빙을 바라보는 또 다른 흐름인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들이 재조명되고 있다(박선영, 2013). 즉, 진정한 웰빙을 위해서는 행복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며,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유쾌한 상태인 행복을 넘어서 자기실현과 성장, 의미에 초점을 두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Ryan & Deci, 2001). 또한 King과 Napa(1998)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의 구성 요소를 탐색하면서, 삶의 의미와 행복은 경제적 성공보다 좋은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그중 삶의 의미가 더 많은 설명력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들은 삶의 의미가 개인의 안녕감과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삶의 위기나 역경을 이겨내는 강력한 자원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다루어진 삶의 의미는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발견했다고 지각하는 삶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Steger, Kashdan, Sullivan, & Loentz, 2008). 이러한 결과들은 삶의 의미의 효과를 설명해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부족하다. 그동안 삶의 의미가 안녕감에 기여하는 주요변인임을 밝히는 연구들이 의미발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시도되었고,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6)에 따르면, 대표적인 척도로 가장 광범위하게 쓰여 온 삶의 의미 척도(Purpose in Life Test; PIL; Crumbaugh & Maholick, 1964)는 Frankl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며, Battista와 Almond(1973)가 개발한 인생관점 척도(Life Regard Index; LRI) 등이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들은 실제로 대처 경향에 대한 측정치이다(Sammallahti, Holi, Komulainen, & Aalberg, 1996). 또한 삶의 의미 척도들은 어떤 한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여러 변인들과 문항 수준에서 중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Frazier, Oishi, & Steger, 2003; Steger et al., 2006). 그러나 Steger 등(2006)은 ‘삶의 의미 척도(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를 개발하면서 삶의 의미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독립된 2요인으로 구성됨을 제시하며, 의미추구의 심리적 속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김상희, 박성현, 2017). 즉, 주관적으로 삶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인 의미발견(the presence of meaning)과 의미를 찾고 싶은 욕구나 동기인 의미추구(the search for meaning)는 서로 구분되어야 하는 독립적인 개념이며, 때로는 순환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척도가 이전의 척도와 구별되는 점은 기존 척도들의 한계점 보완 및 개인이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욕구나 동기인 의미추구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김경희, 이희경, 2013). 의미추구란 ‘개인이 삶의 의미와 중요성, 목적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고 증가시키려는 욕구와 노력들의 강도 및 활동으로 정의된다(Steger et al., 2008). 의미추구를 ‘인간의 기본적인고도 일차적인 동기’라고 보는 Frankl(1963)과 Maddi(1970)는 의미추구가 삶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측면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추구하는 것이며, 자기경험을 이해하고 조직하려는 바람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보

다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개념에 대한 합의를 시작으로, 삶의 의미와 심리적 건강의 관계, 삶의 의미의 치료적 적용과 같이 삶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박선영, 2013). 의미추구가 의미발견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인간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구결과들은 의미추구는 긍정정서 및 삶의 만족,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재해석과 같은 인지적 변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김경희, 이희경, 2013; 정주리, 2007), 외상 후 성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라, 신희천, 2010). 반면, 미국인들의 경우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부적상관을 보였고, 의미추구는 다양한 정신건강 변인 및 안녕감 관련변인들과 부적상관을 보이거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teger, Oishi, & Kashdan, 2009; Steger et al., 2006). 특히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의 관계가 우리나라와 서양 문화권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로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2005)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영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서양 문화권에서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였다(Steger et al., 2006).

Steger 등(2006)은 의미발견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의미추구라는 동기적 측면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의미추구 또는 의미발견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삶의 의미 측정치들은 정적 및 부정 정서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Debats,

Van der Lubbe, & Wezeman, 1993). 의미추구 그 자체는 신경증, 우울, 부정정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ger et al., 2006),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동기인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체로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정주리, 2007; Davis, Wortman, Lehman, & Sliver, 2000). 즉, 의미추구가 심리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의미발견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의미추구가 의미발견, 긍정정서, 삶의 만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준 국내연구들(김경희, 이희경, 2013)은 의미추구가 부정정서와 정적상관을 보인 Steger 등(2006)의 연구결과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국내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국내 정서에서는 의미추구 자체의 특성이 역기능적이거나 부정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백지영, 서수균, 2014). 즉, 어떤 이론가들은 의미추구를 정신건강의 긍정적인 지표로 여기지만, 다른 연구자들에게는 정반대의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다(정미영, 2010).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의미발견은 긍정적 심리변인들과 정적상관을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지만, 의미추구는 그렇지 않으며,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의 관계 연구는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 의미추구 특성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김경희, 이희경, 2013). 또한 긍정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행복은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에 의해 다양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Diener, Lucas와 Oishi(2002)에 따르면, 행복을 촉진시키는 이들 변인들의 영향은 일관성이 없으며,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나 연령대에 따라 매우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차경호(2004)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삶의 의미는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으로 나누었을 때 안녕감과 관계는 동·서양 간 차이를 보인다(김유진, 2013). 또한 삶의 의미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두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두 변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른 관계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가 있었다(백지영, 서수균, 2014). 특히 의미추구의 경우 정신건강 및 안녕감 관련변인들과 보이는 관계양상은 동·서양 문화 간에 차이를 보인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 지표와는 정적상관을, 정신건강 변인들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나는 서양과 다르게, 우리나라나 일본의 동양 문화권에서 의미추구는 정신건강 지표에 오히려 긍정적 역할을 하거나 중립적인 관계를 보인다(김상희, 박성현,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선행연구 결과가 상반되는 것을 반영하여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희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 본 연구에서는 Synder, Irving과 Anderson(1991b)이 제시한 희망에 대한 정의와 이론을 기반으로 희망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희망에 대한 연구가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견해도 불구하고(Snyder, Rand, & Sigmon, 2002),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와 희망이 관련된다는 일반적인 결과만 보여줄 뿐,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희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박선영, 2013). 희망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되는 활동들을 시도하거나 지속시킬 의미(will)가 있는지에 대한 내적신념을 강조하기 때문에(김택호, 2004), 스트레스를 역경에 좌절하기보다는 인생에서 도전해야 할 사건으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대처자원인 동시에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인 강점으로(조현주, 2010),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위한 행동적 요소를 촉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미성(2006)은 삶의 의미가 스트레스의 완충자원으로서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희망을 유지하게 하고, 우울을 낮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희망이 삶의 의미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게 하여, 의미발견을 촉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하여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의미추구와 긍정정서는 의미발견의 증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고(김경희, 이희경, 2013), 긍정정서는 사고와 행동에 피드백 정보의 역할을 하며, 목표지향 상태를 유지하기위한 욕구 및 행동화를 촉진한다(Custers & Aarts, 2005). 긍정정서는 삶의 의미에 대한 목표를 유지하게 하고, 의미발견의 증가에 기여 한다는 연구결과(김경희, 이희경, 2013)와 희망은 의미감 증진 과정에서의 매개역할로 심리적 건강을 개선하는데 유용함이 조사(박선영, 2013)된 바,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과정,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역할을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Debats, Drost, & Hansen, 1995),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더 경험하며(Steger et al., 2006), 안녕

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백지영, 서수균, 2014). 즉, 좋은 삶을 위해서는 행복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선영, 2013). 삶의 의미는 정신건강,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원두리 등, 2005), 그 영향력은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Steger et al., 2009).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연령의 증가로 인한 삶의 의미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간과하였다(김경미 등,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대학생과 중년성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의 두 하위요인인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Wong(2012)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사람들은 일생동안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연령마다 삶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Staudinger, 2001), 발달과업이 다르다(Erickson, 1963). Frankl(1959)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의미 수준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반면, 국내 연구에서는 의미발견은 연령별 차이가 없었지만, 의미추구는 중년집단에 비해 청년집단이 더 높았다(허지연, 2007). 박선영(2013)은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삶의 의미수준이나 원천의 내용이 변화될 수 있고,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삶의 의미와 연령의 관계는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즉, 연령대 별로 삶의 의미가 다르게 경험되고, 심리적 건강이나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도 달라질 수 있음이 시사된다. 따라서 연령에 맞는 삶의 의미에 대한 자각은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것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생의 발달단계에

서 대학생은 청년후기와 성인초기에 속하며, 정체감 확립과 친밀감 형성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있다(Erikson, 1963).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정체감 형성, 취업 스트레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년기는 일과 경력뿐만 아니라 자아신념, 자기수용 등에 더 집중하며(Ryff, 1989), 개인적 성취에 있어서는 만족감을 느끼면서도 인생의 유한성을 직면하면서, 가족 내 역할과 은퇴에 대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삶의 의미는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박선영, 2013), 성인기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대학생 시기의 성공적 발달과 노년기를 준비하는 중년기의 삶의 의미 및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의 관계양상에 대한 연구는 각 시기에 당면한 위기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안녕감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중년성인들의 의미추구, 의미발견, 희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관적 안녕감에 있어서 이를 형성하는 요소들은 연령별, 세대별, 문화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회적 기대와 요구 등의 측면에서도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구제선, 2005). 또한 삶의 의미, 심리적 건강의 관계에서 대학생과 성인집단 모두에서 희망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고(박선영, 2013), 중년기의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의 매개역할이 확인되었다(지은주, 201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희망과 의미발견의 매개역할과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학생 집단과 중년성인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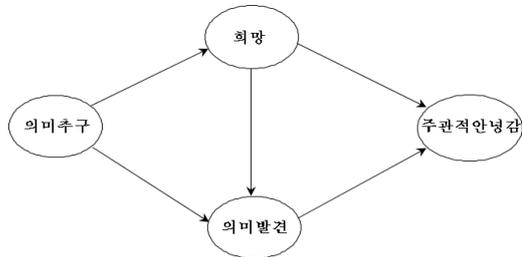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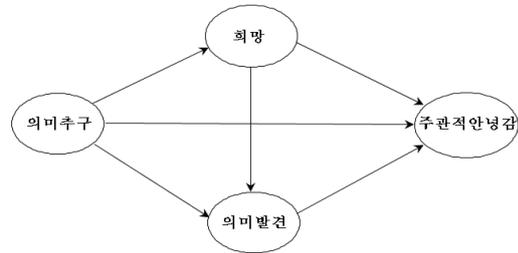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단의 의미추구, 의미발견, 희망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경로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체로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낸 연구결과(정주리, 2007; Davis et al., 2000) 즉, 의미추구가 심리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의미발견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삶의 의미는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지만,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으로 나누었을 때 안녕감의 관계는 동·서양 간에 차이를 보인(김유진, 2013) 등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가 복합적인 것을 반영하여, 그림 1과 같이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희망과 의미발견을 통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희망이 의미발견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최적의 연구모형 선정을 위해 경쟁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경쟁모형은 그림 2와 같이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직접경로와 희망, 의미발견을 매개로 한 간접경로를 모두 포함하고, 희망과 주관적 안

녕감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의 매개경로를 확인하는 부분매개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희망, 의미발견은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둘째, 의미추구, 희망, 의미발견,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대학생 집단과 중년성인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는 강의시간에 협조를 얻어 직접 작성방법을 설명 후 실시하는 방식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설문조사 방식 등을 활용하여 연구목적 설명 후 동의를 받고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6년 7월 1일~9월 20일까지 13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대학생 연구대상은 서울 78명(15.6%), 인천 12명(2.4%), 경기 116명(23.2%), 전북 29명(5.8%), 강원 34명(6.8%), 충남 176명(35.2%), 6개 대학교 대학생과 온라인 55명(11.0%)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470부를 배포하였으며, 총 445부를 사용하

였다. 온라인 설문응답은 62명의 자료 중 5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응답과 온라인 설문응답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누락 문항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총 500부가 본 연구의 대학생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대학생 연구대상의 구성은 전체 500명의 대학생 중 남학생이 183명(36.6%), 여학생이 317명(63.4%)이며, 연령 분포는 19세-21세 399명(79.8%), 22세-24세 87명(17.4%), 25세-27세 13명(2.6%), 28세-29세 1명(0.2%)이며, 대학생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3.6세였다.

중년성인 연구대상은 서울 및 인천, 경기지역의 거주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 작성 방법을 직접 설명 후 실시하는 방식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설문조사 방식 등을 활용하여 연구목적 설명 후 동의를 받고 실시하였다. 중년성인 연구대상은 서울 73명(14.6%), 인천 310명(62.0%), 경기 33명(6.6%), 온라인 84명(16.8%)의 중년성인(40세 이상-65세)¹⁾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450부를 배포하였으며 416부를 사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응답은 101명의 자료 중 84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응답과 온라인 설문응답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40-65세의 연령범위 밖에 있는 설문을 제외한 총 500부가 중년성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중년성인 연구대상 성별 구성은 전체 500명의 중년성인 중 남성이 175명(35.0%), 여성이 325명(65.0%)이며, 연령 분포는 40세-44세 171명(34.2%), 45세-49세 136명(27.2%), 50세-54세 85명(17.0%), 55세-59세 73명(14.6%), 60세-65세

35명(7.0%)이며, 중년성인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2.5세였다.

측정도구

삶의 의미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4)가 개발하고, 원두리 등(2005)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의미추구, 의미발견이라는 두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요인 각 5 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에 1점, ‘언제나 그렇다’에 7점을 주는 Likert식 7점 척도로, 의미추구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함을 나타내며, 의미발견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많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두리 등(2005)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하위척도 두 요인 모두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대학생의 Cronbach's α 계수는 .91, 중년성인은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의미추구, 의미발견 변인을 각각 두 개의 문항군(item parceling)으로 제작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문항군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최대우도법 사용의 필요성과 개별 문항들을 모두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추정모수의 수와 측정오차를 줄여 전체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한다(Russell et al., 1998). 요인부하량에 따른 항목 합산을 위해, 전체문항을 일요인 분석을 한 후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에 따라 각 문항집단의 평균값을 비슷하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에 따라 순위를 매긴 후 가장 큰 부하

1) 본 연구의 중년성인 연구대상은 중년기의 범주를 40-65세로 한 선행연구(지은주, 2016) 및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을 참고하여 40세 이상-65세를 중년기 연령 범주로 정하였다.

량의 문항과 가장 작은 부하량의 문항을 묶어 각 지표에 속하는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을 같게 하는 방법으로 문항군을 형성하였다. 의미추구는 전체 5문항을 3문항(2, 3, 7번), 2문항(8, 10번)으로, 의미발견은 전체 5문항을 3문항(4, 6, 9번), 2문항(1, 5번)으로 각각 3개 또는 2개의 문항 묶음으로 측정 지표를 구성하고, 각 변인을 2개의 관측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학생 의미추구 문항군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81, .80, 전체 .88로 나타났고, 의미발견 문항군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79, .78, 전체 .87로 나타났고, 중년성인 의미추구 문항군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86, .82, 전체 .90으로 나타났고, 의미발견 문항군의 신뢰도 계수는 .74, .76, 전체 .85로 나타났고.

희망

희망 척도는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희망을 측정하는 특성희망 척도와 개인의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희망을 측정하는 상태희망 척도로 구분된다. 특성희망 척도(Trait Hope Scale)는 Snyder 등(1991a)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전체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로사고(pathway) 요인 4문항, 주도적 사고(agency)요인 4문항, 중립(filter)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며, 중립문항은 채점에서 제외된다. 상태희망 척도(State Hope Scale)는 Snyder 등(1996)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모두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로사고 요인 3문항, 주도적 사고 요인 3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택호(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특성희망 척도(1번-12번)와 상태희망 척도(13번-18번)의 총합을 계산하여 전체 희망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문항 번호 중 중립문항은 통계처리에서 제외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측정하였다. 김택호(2004)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특성희망 .86, 상태희망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체 희망 척도 Cronbach's α 는 .92, 특성희망 .84, 상태희망 .88로 나타났고, 중년성인의 전체 희망 척도 Cronbach's α 는 .94, 특성희망 .88, 상태희망 .90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

주관적 안녕감 측정치로 인지적 안녕감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녕감인 정적 및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 측정은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의 삶의 만족 척도를 김정호(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Likert식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많이 그렇다' 7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김정호(2007) 연구의 Cronbach's α 는 .84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88, 중년성인 .91로 나타났다.

정서 척도는 Diener, Smith, Fujita(1995)가 개발한 척도를 안신능(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긍정적 정서경험과 부정적 정서경험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가 사랑, 기쁨, 두려움, 창피함, 화, 슬픔의 6차원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24 문항의 정서표현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난 4주 동안 각 문항에 제시된 정서를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묻는 질문에 Likert식 7점 척도로 '전혀 느낀 적 없다'에 1점, '항상 느꼈다'는 7점으로 답하였다. 안신능

(200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범위가 .74-.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은 긍정정서 .91, 부정정서 .92, 중년성인은 긍정정서 .91, 부정정서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정서에서 부정정서를 빼 값을 삶의 만족도와 합산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한다(박선영(2013)의 선행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산출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삶의 만족도+(긍정정서-부정정서).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의 기술 통계량을 분석하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연구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AMOS 18.0을 사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χ^2 검증 이외에 일반적으로 널리 추천되고 있는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평가 기준으로 하였다. CFI, TLI는 0.9이상이면 모형의 적

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고(홍세희, 2000), RMSEA의 경우, RMSEA<.05 좋은 적합도, RMSEA<.08 괜찮은 적합도, RMSEA<.10 보통 적합도, RMSEA>.10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Browne & Cudeck, 1993).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은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이용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이용하였다. 팬텀변수는 가상의 변수로서 모델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이다(배병렬, 2015).

결 과

모형검증을 위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 검증을 위한 의미추구, 희망, 의미발견, 주관적 안녕감 변인의 상관계수(r),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관련변인 간 상관, 평균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대학생 $N=500$, 중년성인 $N=500$)

척도	의미추구	희망	의미발견	주관적 안녕감
의미추구	-			
희망	.48** (.59**)	-		
의미발견	.61** (.71**)	.67** (.61**)	-	
주관적 안녕감	.38** (.49**)	.70** (.66**)	.61** (.61**)	-
<i>M</i>	5.22(5.32)	3.58(3.58)	4.83(5.20)	5.65(6.05)
<i>SD</i>	1.06(1.08)	0.63(0.69)	1.20(1.07)	2.70(2.56)
왜도	-0.56(-0.96)	-0.08(-0.25)	-0.12(-0.59)	-0.07(-0.24)
첨도	0.50(1.50)	-0.17(-0.13)	-0.59(0.31)	-0.18(-0.13)

주. ** $p < .01$, ()은 중년성인 계수임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는 .38~.70(.49~.71)의 정적상관을 보였다. 한편 예측변인 간 상관이 클수록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된다.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을 준거 변인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변인들의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해 본 결과, 1.6~2.3(1.7~2.3)까지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10 이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대학생과 중년성인의 의미추구, 희망, 의미발견, 주관적 안녕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처럼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의미추구, 희망, 의미발견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전 각 측정변인들의 다변량 정규성의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조건이 아닌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정상분포조건(왜도<2, 첨도<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는 -.56~-.07(-.96~-0.24)로, 첨도는 -.59~.50(-.13~1.50)으로 정규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

족시키고 있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모형에 대한 χ^2 값은 대학생 49.906, 중년성인 69.318로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대학생 TLI는 .981, CFI는 .989, RMSEA는 .053(90%신뢰구간=.034-.071)으로, 중년성인 TLI는 .970, CFI는 .983, RMSEA는 .068(90%신뢰구간=.051-.086)로 양호하였다. 측정변수들에 대한 해당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의미추구의 측정변수 요인부하량은 .82(.81), 희망 .90(.92), 의미발견 .87(.85), 주관적 안녕감 -.45~.69(-.38~.68)로 $p < .001$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이하게 나타났으며, 9개의 측정변수로 4개의 잠재변수를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측정모형 검증결과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대학생 측정모형	49.906	21	.000	.981	.989	.053 (.034-.071)
중년성인 측정모형	69.318	21	.000	.970	.983	.068 (.051-.086)

표 3. 측정변인의 표준화/비표준화, 요인부하량, 표준오차(대학생 N=500, 중년성인 N=500)

측정변수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B)	표준화 요인부하량 (β)	S.E.	C.R.	SMC
의미추구					
의미추구 1	1.00(1.00)	.94(.95)			.88(.91)
의미추구 2	0.94(0.96)	.82 ^{***} (.81 ^{***})	.05(.04)	18.41(21.99)	.66(.66)
희망					
특성희망	1.00(1.00)	.89(.92)			.80(.85)
상태희망	1.22(1.14)	.90 ^{***} (.92 ^{***})	.05(.04)	26.12(28.91)	.81(.84)
의미발견					
의미발견 1	1.00(1.00)	.89(.89)			.79(.79)
의미발견 2	0.93(0.87)	.87 ^{***} (.85 ^{***})	.04(.04)	23.82(22.98)	.75(.71)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1.00(1.00)	.83(.80)			.68(.63)
긍정정서	0.79(0.75)	.69 ^{***} (.68 ^{***})	.05(.05)	15.24(14.49)	.47(.46)
부정정서	-0.46(-0.36)	-.45 ^{***} (-.38 ^{***})	.05(.05)	-9.50(-7.78)	.20(.14)

주. ^{***} $p < .001$, ()은 중년성인 계수임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남으로써 구조모형에서는 대학생과 중년성인들을 대상으로 의미추구, 희망, 의미발견,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복합적인 것을 반영하여,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직접경로를 제외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직접경로와 희망, 의미발견을 매개로한 간접경로를 모두 포함한 부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

형의 적합도 검증은 구조방정식의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측정변수는 각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모형 검증결과, 연구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증(χ^2 test)은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연구모형을 기각하기 쉽고, 표본 수에 매우 민감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명확한 해석 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인 상대적 적합도 지수(Relative Fit Index)중 CFI와 TLI, 절대적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 RMSEA 등을 사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김주환 등, 2009).

대학생 연구모형은 $\chi^2=52.723(df=22, N=500,$

$p=.000$), $TLI=.981$, $CFI=.988$, $RMSEA=.053$ (90% 신뢰구간=.035-.071)으로, 대학생 경쟁모형은 $\chi^2=49.906(df=21, N=500, p=.000)$, $TLI=.981$, $CFI=.989$, $RMSEA=.053$ (90%신뢰구간=.034-.071)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두 모형은 모두 $p<.05$ 로 양호하였다. 중년성인 연구모형은 $\chi^2=71.863(df=22, N=500, p=.000)$, $TLI=.971$, $CFI=.982$, $RMSEA=.067$ (90%신뢰구간=.050-.085)로, 중년성인 경쟁모형은 $\chi^2=69.318(df=21, N=500, p=.000)$, $TLI=.970$, $CFI=.983$, $RMSEA=.068$ (90%신뢰구간=.051-.086)로 양호하였다. 따라서 두 모형은 모두 $p<.05$ 로 양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모형 중 더 좋은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 TLI , CFI , $RMSEA$ 등 적합도 지수 외에 χ^2 차이검증을 하였다. 각 모형별 적합

도 지수는 표 4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χ^2 검증은 동일한 모형에 동일한 행렬자료라도 표본 크기에 따라 χ^2 이 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χ^2 값이 유의하여도 실제로 모형이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좋은 모형일 가능성이 있어 χ^2 값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배병렬, 2009). 본 연구는 구조모형의 표본의 크기나 다변량 정규성의 위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잘 설명해주는 TLI 가 0.9이상이므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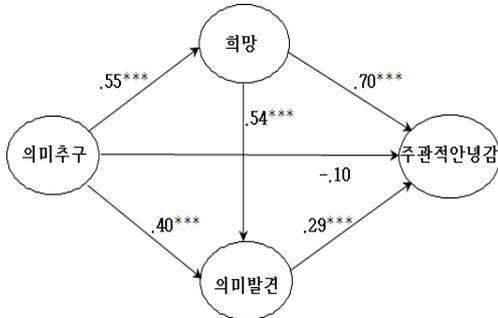
더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한 결과, 경쟁모형은 한 개의 경로를 더 추정하므로 자유도(df)는 1이

표 4. 대학생 모형별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연구모형 ($N=500$)	52.723	22	.000	.981	.988	.053 (.035-.071)
경쟁모형 ($N=500$)	49.906	21	.000	.981	.989	.053 (.034-.071)
모형 간 차이검증 $\Delta\chi^2=2.817(\Delta df=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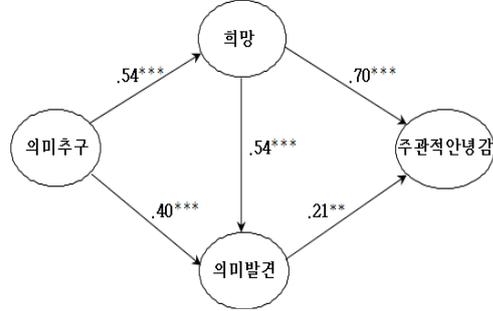
표 5. 중년성인 모형별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연구모형 ($N=500$)	71.863	22	.000	.971	.982	.067 (.050-.085)
경쟁모형 ($N=500$)	69.318	21	.000	.970	.983	.068 (.051-.086)
모형 간 차이검증 $\Delta\chi^2=2.545(\Delta df=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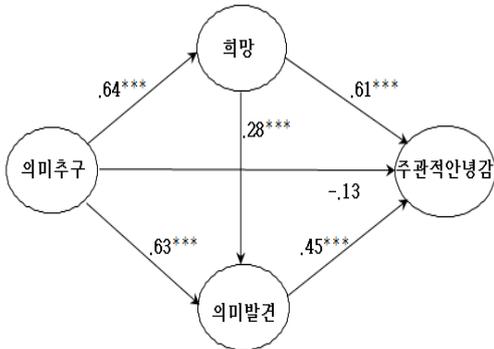
*** $p < .001$

그림 3. 대학생 경쟁모형의 경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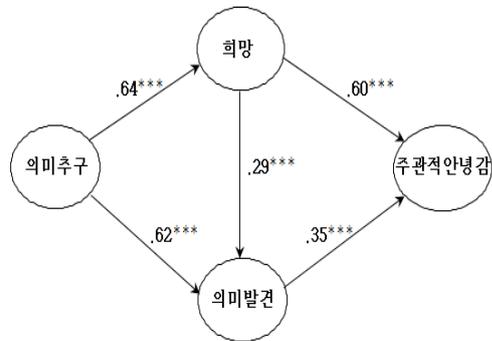
** $p < .01$, *** $p < .001$

그림 4. 대학생 최종모형(연구모형)의 경로도



*** $p < .001$

그림 5. 중년성인 경쟁모형의 경로도



*** $p < .001$

그림 6. 중년성인 최종모형(연구모형)의 경로도

적다. 여기서 χ^2 이 감소함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3.84가 통계치인데, 본 연구모형은 대학생 $\Delta\chi^2=2.817$, 중년성인 $\Delta\chi^2=2.545$ 로 두 모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명성의 원리에 따라 두 집단 모두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대학생 경쟁모형의 경로는 그림 3에, 최종 선택된 연구모형은 그림 4에 제시하였고, 중년성인 경쟁모형의 경로는 그림 5에, 최종 선택된 연구모형의 경로는 그림 6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의 내생 잠재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희망이 의미추구에 의해 설명되는 양

은 29.3%(40.9%), 의미발견이 의미추구에 의해 설명되는 양은 약 68.9%(69.5%), 주관적 안녕감이 의미추구, 희망, 의미발견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양은 약 76.6%(76.0%)로 나타났다. 구체적 결과는 그림 4, 그림 6과 표 6에 제시되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은 의미추구가 희망($\beta=.54, p < .001$), 의미발견($\beta=.40, p < .001$)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였다. 또한 희망이 의미발견($\beta=.54, p < .001$), 주관적 안녕감($\beta=.70, p < .001$)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의미발견이 주관적 안녕감($\beta=.21, p < .01$)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였다.

표 6. 최종모형의 직접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S.E.	C.R.
의미추구 → 희망	0.29(0.38)	.54(.64)	.03(.03)	11.13 ^{***} (14.44 ^{***})
의미추구 → 의미발견	0.45(0.62)	.40(.62)	.05(.05)	8.68 ^{***} (11.74 ^{***})
희망 → 의미발견	1.16(0.48)	.54(.29)	.10(.08)	11.93 ^{***} (6.03 ^{***})
희망 → 주관적 안녕감	1.34(0.97)	.70(.60)	.13(.10)	10.15 ^{***} (9.99 ^{***})
의미발견 → 주관적 안녕감	0.19(0.33)	.21(.35)	.06(.06)	3.17 ^{**} (5.83 ^{***})
R^2	희망 29.3%(40.9%), 의미발견 68.9%(69.5%), 주관적 안녕감 76.6%(76.0%)			

주. ^{**} $p < .01$, ^{***} $p < .001$, ()은 중년성인 계수임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중년성인은 의미추구가 희망($\beta = .64$, $p < .001$), 의미발견($\beta = .62$, $p < .001$)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였다. 또한 희망이 의미발견($\beta = .29$, $p < .001$), 주관적 안녕감($\beta = .60$, $p < .001$)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의미발견이 주관적 안녕감($\beta = .35$, $p < .001$)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이용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실시 결과는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표 7. 매개효과 검증

경로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95% 신뢰구간 (최저치와 최고치)	표준 오차
의미추구 → 희망 → 의미발견	.29 (.18)	.33 ^{***} (.19 ^{***})	.27-.42 (.12-.26)	.04 (.04)
의미추구 → 희망 → 주관적 안녕감	1.00 (1.00)	.38 ^{***} (.37 ^{***})	.28-.53 (.29-.47)	.06 (.05)
의미추구 → 의미발견 → 주관적 안녕감	1.00 (1.00)	.08 ^{**} (.21 ^{***})	.03-.16 (.13-.30)	.03 (.04)
희망 → 의미발견 → 주관적 안녕감	.11 (.01)	.22 ^{**} (.16 ^{***})	.07-.39 (.09-.26)	.08 (.04)
의미추구 → 희망 → 의미발견 → 주관적 안녕감	1.00 (1.00)	.06 ^{**} (.06 ^{***})	.02-.11 (.03-.10)	.02 (.02)

주. ^{**} $p < .01$, ^{***} $p < .001$, ()은 중년성인 계수임

으로 보는 방법이다(홍세희, 2007). 검증결과, 모든 경로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추구에서 희망과 의미발견을 거쳐 주관적 안녕감으로 가는 모든 경로가 95% 신뢰구간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과정이 독립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과 의미발견은 대학생과 중년성인의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반면,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희망은 부분적으로 매개하였으며, 희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희망, 의미발견의 이중매개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대학생과 중년성인 모두에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의미추구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과 의미발견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의미추구의 효과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희망과 의미발견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경로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다집단 차이 분석

대학생 집단과 중년성인 집단의 변수들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의미추구와 희망은 전체와 하위변인 모두 통

표 8. 대학생, 중년성인, 측정변인 간 차이검증 ($N=1000$)

측정변수	대학생($N=500$)		중년성인($N=500$)		t
	M	SD	M	SD	
의미추구	5.22	1.06	5.32	1.08	-1.44
의미추구 1	5.29	1.09	5.36	1.09	-0.99
의미추구 2	5.12	1.18	5.26	1.23	-1.84
희망	3.58	0.63	3.58	0.69	-0.20
특성희망	3.64	0.61	3.65	0.68	-0.43
상대희망	3.50	0.74	3.49	0.78	0.09
의미발견	4.83	1.20	5.20	1.07	-5.16 ^{***}
의미발견 1	4.78	1.29	5.12	1.17	-4.47 ^{***}
의미발견 2	4.91	1.23	5.31	1.08	-5.49 ^{***}
주관적 안녕감	5.65	2.70	6.05	2.56	-2.40 [*]
삶의 만족	4.29	1.24	4.29	1.27	-0.05
긍정정서	4.68	1.17	4.37	1.12	4.17 ^{***}
부정정서	3.31	1.05	2.62	0.97	10.93 ^{***}

주. * $p < .05$, *** $p < .001$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미발견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년성인($M=5.20$)이 대학생($M=4.83$)에 비해 의미발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16, p<.001$). 의미발견1요인은 중년성인($M=5.12$)이 대학생($M=4.7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4.47, p<.001$), 의미발견2요인 또한 중년성인($M=5.31$)이 대학생($M=4.9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49, p<.001$).

주관적 안녕감 전체는 중년성인($M=6.05$)이 대학생($M=5.6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2.40, p<.05$). 긍정정서 하위요인은 대학생($M=4.68$)이 중년성인($M=4.37$)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t=4.17, p<.001$), 부정정서 하위요인 또한 대학생($M=3.31$)이 중년성인($M=2.6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10.93, p<.001$). 삶의 만족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형태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요인 구조가 같은지 평가한다. 모형이 각 집단에서 동일하게 선정되면 형태동일성이 만족된 것이다(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대학생 집단($N=500$)과 중년성인 집단($N=500$) 간의 형태동

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이 두 집단 자료에 모두 적합한지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본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집단 $\chi^2=124.586(df=44, N=500, p=.000)$, TLI=.976, CFI=.985, RMSEA=.043(.034-.052), 중년성인 집단 $\chi^2=124.586(df=44, N=500, p=.000)$, TLI=.976, CFI=.985, RMSEA=.043(.034-.052)의 좋은 적합도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형태동일성이 확인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

형태동일성이 만족되었으므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 단계부터는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게 되는데, 앞서 형태동일성이 성립된 모형을 기저모형(baseline model)으로 설정한다. 또한 측정동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과 동일성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간의 χ^2 차이검증을 통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한다(홍세희, 2001). 표 9에 제시된 χ^2 차이검증 결과에 의하면 기저모형과 제약모형 간의 χ^2 차이는 $\Delta\chi^2=5.41, \Delta df=5$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과 중년성인 집단 간에는 측정동일성이 있음이

표 9. 측정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기저모형	124.586	44	.000	.976	.985	.043 (.034-.052)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129.996	49	.000	.978	.985	.041 (.032-.049)
모형 간 차이 검증 $\Delta\chi^2=5.41(\Delta df=5), p>.05$						

검증되었다. 즉,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이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조동일성 검증

대학생 집단과 중년성인 집단 간에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동일성 검증을 위해,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구조모형 내의 경로계수 각각을 동일하게 제약한 구조동일성 제약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표 10에 제시된 것처럼 두 집단의 측정동일성 제약모형과 구조동일성 제약모형 간의 χ^2 차이는 $\Delta\chi^2=42.135$, $\Delta df=5$,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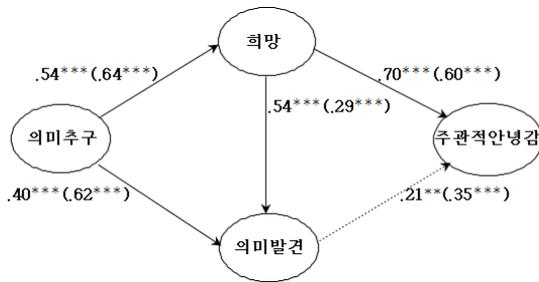
모든 경로에 동일성제약을 가한 모형의 검증결과, 영가설이 기각되어 연구모형의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경로계수에 동일화제약을 가해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의미추구 → 희망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 → 의미발견에 미치는 영향, 희망 → 의미발견에 미치는 영향, 희망 →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미발견 → 주관적 안녕감 경로에서도 대학생과 중년성인 집단 간의 계수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의미발견과 주관적 안녕감 경로는 연령과 무관하게 대학생과 중년성인 집단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경

표 10. 구조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측정동일성 제약모형	129.996	49	.000	.978	.985	.041 (.032-.049)
구조동일성 제약모형	172.131	54	.000	.971	.978	.047 (.039-.055)

모형 간 차이 검증 $\Delta\chi^2=42.135(\Delta df=5)$, $p < .05$



(.....) 집단차이 유의하지 않음

그림 7. 집단 별 경로계수, ()는 중년성인 경로계수

표 11. 집단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χ^2	df	TLI	CFI	RMSEA	모형비교	
						Δdf	$\Delta \chi^2$
기저모형	124.586	44	.976	.985	.043		
모든 경로에 동일성제약 (측정동일성)	129.996	49	.978	.985	.041	5	12.165
완전 구조동일성	172.131	54	.971	.978	.047	5	59.629*
의미추구 → 희망	135.571	50	.977	.984	.041	1	5.57*
의미추구 → 의미발견	135.125	50	.977	.984	.041	1	5.13*
희망 → 의미발견	161.308	50	.970	.979	.047	1	31.31***
희망 → 주관적 안녕감	135.489	50	.977	.984	.041	1	5.49*
의미발견 → 주관적 안녕감	133.540	50	.978	.985	.041	1	3.54

주. * $p < .05$, *** $p < .001$

로계수는 그림 7에, 집단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과 중년성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과 의미발견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 검증 및 매개변인들의 매개역할과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와의 관련성과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희망과 의미발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구조모형 검증결과,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직접경로와 희망, 의미발견을 매개로 한 간접경로를 모두 포함한 경쟁모

형보다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직접경로를 제외한 연구모형이 대학생과 중년성인 모두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대학생과 중년성인 모두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의미추구는 희망, 의미발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미추구는 주관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매개경로는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희망과 의미발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의미추구, 희망, 의미발견, 주관적 안녕감의 이중매개경로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매개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미추구, 희망, 의미발견 경로를 살펴보면, 의미추구 수준이 높을수록 희망이 강해지고, 강해진 희망은 의미발견 수준을 높이며, 희망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미추구에서 의미발견으로 이어짐에 있어 희망의 강화가 중요함을 새롭

게 확인한 것이다. 희망은 목표를 수행하려는 주도사고와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사고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서 어떤 원천이 중요한지를 자각하게 되면, 그러한 목표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력과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박선영, 2013). 의미발견을 위해서는 의미추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의미추구의 결과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유성경, 박은선, 김수정, 조효진, 2014). 삶의 의미를 추구하다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우울, 불안, 공포와 같은 부정정서와 정적인 관련을 보였다(Steger et al., 2006). 의미추구는 자신의 삶에 대한 보다 나은 가치와 바람직한 목표의 관점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으로(정미영, 2010), 본 연구를 통해 의미발견 과정에서 희망을 강화시켜야 하는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과 중년성인들이 각 시기의 발달단계에서 위기를 경험하거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내담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높은 희망을 갖고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장면에서 도움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의미추구, 희망, 주관적 안녕감 경로를 살펴보면, 희망은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시기와 중년기 성인의 삶의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안녕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원두리 등, 2005; 정주리, 2007; Steger et al., 2006), 본 연구결과는 희망이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영향을 주어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긍정적 믿음과 기대를 가지게 되며, 긍정적 신념과 확고한 믿음은 희망과 낙관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여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김경미 등, 2011).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데 희망이 주요한 역할을 하며(배상정, 양난미, 2014),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한다(주은정, 201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희망 수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희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적용을 돕는 상담프로그램의 진행과 더불어 삶의 의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미추구, 의미발견, 주관적 안녕감 경로를 살펴보면, 의미발견은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안녕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원두리 등, 2005; 정주리, 2007; Steger et al., 2006)을 재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것과(정미영, 2010; Steger et al., 2006),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이 항상 만족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는 것(원두리 등, 2005; Frankl, 1963)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욕구와 동기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경숙

(2010)은 집단 비교연구에서 안녕감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삶의 의미 영향이 가장 크며, 경제력이 행복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삶의 의미나 의미 있는 삶의 요인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이 높거나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직업적 활동만이 안녕감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대학생과 중년성인들은 의미를 추구할 때 의미발견을 해야만 주관적 안녕감을 얻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삶의 의미추구 과정에서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미추구의 동기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희망, 의미발견, 주관적 안녕감 경로를 살펴보면, 희망이 높을수록 의미발견이 높아지고, 의미발견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미발견은 희망과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미발견의 매개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희망적 사고는 가능한 방법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과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능력이다(Snyder et al., 1991b). 이러한 희망의 속성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촉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삶의 의미추구는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의미발견을 증가시키는 경로를 통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즉,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할 때 반드시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지만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과 특히,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의미발견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정주리, 2007)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희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미추구, 희망, 의미발견, 주관적 안녕감의 이중매개경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과 중년성인의 의미추구는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희망과 의미발견의 이중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삶의 의미를 추구할 때 희망은 의미발견을 높이고 이것이 다시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의미를 추구할 때 희망의 강화를 통하여 의미발견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삶의 의미를 추구할 때 궁극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밝히는 것은 이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 차원에서도 많은 시사점이 있다(지은주, 2016).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 시기와 중년기 성인들이 삶의 의미추구 과정에서 각 시기에서 겪을 수 있는 위기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매개변인으로 희망과 의미발견의 영향력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대학생 집단과 중년성인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 집단 간 차이검증을 하였다. 우선, 대학생과 중년성인의 변인 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의미추구는 대학생과 중년성인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가 중년성인에 비해 높았던 연구결과(허지연, 2007)와 20대가 40대에 비해 높았던 결과(김상희, 박성현, 2017)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희망은 대학생과 중년성인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미발견은 중년성인이 대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가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청년기와 중년기에 차이가 없었던 연구결과(허지연, 2007)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주관적 안녕감 전체는 중년성인이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하위요인은 대학생이 중년성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 하위요인은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 안녕감 전체는 중년성인이 대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 50대 이상이 20대 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결과(전영숙, 2015)와 일치한다. 한편, 대학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다른 연령대 보다 낮다는 연구결과(Myers & Diener, 1995)와 대학생들은 삶의 만족 수준을 높지 않게 지각하고 있으며(고영남, 2014), 대학생들은 긍정정서를 많이 느끼고 있고, 부정정서를 적게 느끼고 있는 결과(고영남, 2014; 허지연, 2007)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측정된 각 변인들의 차이는 관련된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된 연령별 차이검증 연구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 충분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심리적 차원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삶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들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차경호, 2004).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대학생과 중년성인 집단 간의 차이는 상담에서 다루어야 할 개인적 성장과 삶의 목적 등과 함께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감은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발달적 맥락에 따른 상담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생 집단과 중년성인 집단의 경로

계수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미추구가 희망과 의미발견에 미치는 영향, 희망이 의미발견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추구에서 희망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추구에서 의미발견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생 집단에 비해 중년성인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의미추구가 희망과 의미발견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생 집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집단 간 차이검증 결과, 중년성인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 의미추구 변인은 대학생 시기보다 중년성인들에게 더 중요한 변인임이 시사된다. 의미추구는 자기존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요구이며, 자기성장을 위한 열망과 동기인(Steger et al., 2009) 동시에 삶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측면으로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경험을 이해하고 조직하려는 바람으로 볼 수 있다(Steger et. al., 2008). 중년기에는 주요 과업의 성취에 대한 재평가에서부터 전체 삶의 조망,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 영성적 자각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삶의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김경은, 박금주, 민하영, 최지영, 전숙영, 2011). 중년기의 전환은 발달의 잠재력을 갖는 질적인 변화로 최고조이던 성취와 힘, 사회적 역할, 심리적 기능 등에서 일어나는 양적인 변화 이상으로(전경숙, 2010), 이것은 마치 청소년기와는 다른 의미의 2차 성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창조적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이옥희, 이지연, 2012)를 참고할 때, 중년성인들에게 있어 삶의 의미추구는 중년기 이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주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희망이 의미발견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생 집단이 중년성인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희망이 의미발견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중년성인 집단에서도 중요한 변인이지만,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대학생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희망 변인은 대학생 시기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인다. 연령은 심리적 안녕감에 설명력이 있는 요인으로, 희망이 높을수록, 대학생 집단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남희, 2006). 생의 발달주기 중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정신적 및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삶의 질은 성인이 된 후의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현미, 2009). 본 연구결과, 희망 변인 자체의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로모형을 고려해 볼 때, 희망은 대학생 집단에서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학생과 중년성인들의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삶의 의미 추구는 대학생과 중년성인들의 희망과 의미발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국내에서 삶의 의미를 발달단계별로 비교하는 연구는 부족한데, 본 연구결과는 중년기에서만 아니라 대학생 시기에서도 본 연구의 모형이 적용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삶의 의미에 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최근 삶의 의미관련 연구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하위요인은 변인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 간의 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김유진, 2013). 본 연구에서도 두 변인 간 상관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은 희망, 주관적 안녕감 변인들과 다른 관계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두 개념이 독립적인 변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넷째, 의미추구와 안녕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어 왔다. 구체적으로 의미추구만으로는 안녕감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주장(김유진, 2013; 원두리 등, 2005; 정주리, 2007; Steger et al., 2006)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허지연, 2007)는 주장이 있어,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결과, 의미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안녕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대학생 집단과 중년성인 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 검증 결과, 의미발견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희망은 중년성인 집단에서도 영향을 미쳤지만 대학생 시기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의미추구 또한 대학생 집단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중년성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의 표본 추출은 임의추출 방식으로 각 집단별 표집 인원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보다 정교한 연구 설계를 통해 집단 간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측정이 이루어진 시

점의 양상을 반영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것에 한계를 지니고 있어 삶의 의미가 주관적 안녕감에 어느 정도로 지속적 효과를 보이는지 시간적 흐름에 따른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구방법을 사용함에 있어 삶의 의미, 희망, 주관적 안녕감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자기보고식 형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대학생과 중년성인들의 삶의 의미발견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는 변인을 추가로 설정하여, 삶의 의미발견 과정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희망 외에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변인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희망은 의미추구와 의미발견 간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연구와 더불어 희망 수준을 증대시킴으로써 삶의 전반적인 적응과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그에 대한 효과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고영남 (2014). 남녀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20(3), 97-120.
- 구재선 (2005). 성격, 효능감, 생활경험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토착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1). 삶의 의미가 노년기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년기와 노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503-523.
- 김정은, 곽금주, 민하영, 최지영, 전숙영 (2011). 한국 직장 남성의 중년에 대한 인식. *인간발달연구*, 18(3), 135-155.
- 김경희, 이희경 (2013). 의미추구와 긍정정서가 의미발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07-124.
- 김남희 (2006). 희망과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보라, 신희천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17-136.
- 김상희, 박성현 (2017). 연령대별 삶의 의미와 안녕감의 관계: 10대, 20대, 40대 간 의미추구, 의미발견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1), 61-78.
- 김유진 (2013). 삶의 의미추구 및 발견,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25-345.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선영 (2013). 삶의 의미와 심리적 건강의 관

- 계: 다차원적 삶의 의미 척도와 의미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현미 (2009). 대학생과 직장인의 성취와 삶의 질에 대한 종단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제2판)-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배병렬 (2015). SPSS/Amos/LISREL/SmartPL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배상정, 양난미 (2014). 영성, 희망, 외상 후 성장과 삶의 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597-616.
- 백지영, 서수균 (2014). 스트레스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3), 509-529.
- 심미성 (2006). 스트레스 완충자원으로서 삶의 의미의 역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신능 (2006). 자기 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관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15.
- 유성경, 박은선, 김수정, 조효진 (2014).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 1997년-2013년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2), 441-465.
- 이옥희, 이지연 (2012). 중년기 생성감 척도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2), 665-688.
- 전경숙 (2010). 한국 중년의 안녕감: 행복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척도개발 및 집단 간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영숙 (2015). 종교성, 실존적 안녕감, 감사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영 (2010). 삶의 의미발견 과정에 관한 연구: 의미추구, 의미발견, 사생관 및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주리 (2007). 삶의 의미발견 과정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현주 (2010). 희망이 생활스트레스와 정신병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839-852.
- 주은정 (2014). 초등교사의 희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지은주 (201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의미발견, 생성감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차경호 (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321-337.
- 허지연 (2007). 청년기와 중년기 집단에서의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모형의 기초와 응용. 미발간 워크샵 교재.
- 홍세희 (2007).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한 다집단 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 미발간 워크샵 교재.

-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 Battista, J., & Almond, R. (1973). The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Psychiatry*, 36(4), 409-427.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Crumbaugh, J. C., & Maholick, L. T. (1964). An experimental study in existentialism: The psychometric approach to Frankl's concept of noogenic neuro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 200-207.
- Custers, R., & Aarts, H. (2005). Positive affect as implicit motivator: On the nonconscious operation of behavioral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2), 129-142.
- Davis, C. G., Wortman, C. B., Lehman, D. R., & Sliver, R. C. (2000). Searching for meaning in loss: Are clinical assumption correct? *Death Studies*, 24(6), 497-540.
- Debats, D. L., Drost, J., & Hansen, P. (1995). Experiences of meaning in life: A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6(3), 359-375.
- Debats, D. L., Van der Lubbe, P. M., & Wezeman, F. R. A. (1993). On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Life Regard Index (LRI): A measure of meaningful lif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2), 337-345.
- Diener, E., Lucas, R. E., & Oishi, S. (2002).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63-73). New York: Oxford University.
- Diener, E., Smith, H., & Fujita, F. (1995).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1), 130-141.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Y: Norton.
- Frankl, V. E. (1959).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4th Ed.), Boston: Beacon Press.
- Frankl, V. E. (1963). *Man's search for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Frazier, P., Oishi, S., & Steger, M. (2003). Assessing optimal human functioning. In B. Walsh (Ed.), *Counseling Psychology and Optimal Human Functioning* (pp.251-278). Mahwah, NJ: Erlbaum.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King, L. A., & Napa, C. K. (1998). What makes a life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156-165.
- Maddi, S. R. (1970). The search for meaning. In M. Pag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p.137-186). Lincoln, NE:

- University Nebraska Press.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 Russell, D., Kahn, J. H., Spoth, R. S.,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Ryff, C. D. (1989). In the eye of the beholder: View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4(2), 195-210.
- Sammallahti, P. R., Holi, M. J., Komulainen, E. J., & Aalberg, V. A. (1996). Comparing two self-report measures of coping-the Sense of Coherence Scale and the Defence Styles Questionnai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2(5), 517-524.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 Harney, P. (1991a).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 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 Snyder, C. R., Irving, L., & Anderson, J. R. (1991b). Hope and health: Measuring the will and the ways. In C. R. Snyder, & D. R. Forsyth (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The health perspective* (pp.285-305). Elmsford, NY: Pergamon.
- Snyder, C. R., Rand, K. L., & Sigmon, D. R. (2002). Hope theory: A member of the positive psychology family. In C. R. Snyder,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257-27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Snyder, C. R., Sympson, S. C., Ybasco, F. C., Borders, T. F., Babyak, M. A., & Higgins, R. L.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te Hop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21-335.
- Staudinger, U. M. (2001). Life reflection: A social-cognitive analysis of lif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2), 148-160.
- Steger, M. F., Oishi, S., & Kashdan, T. B. (2009). Meaning in life across the life span: Levels and correlates of meaning in life from emerging adulthood to older adulthood.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1), 43-52.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 Steger, M. F., Kashdan, T. B., Sullivan, B. A., & Lorentz, D. (2008). Understanding the search for meaning on life: Personality, cognitive style, and the dynamic between seeking and experiencing meaning. *Journal of Personality*, 76(2), 199-228.
- Wong, P. T. P. (2012). *The human quest for*

송현심 · 성승연 / 대학생과 중년성인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희망,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검증

meaning: Theories,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 York: Routledge.

원 고 접 수 일 : 2017. 05. 15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6. 24

게 재 결 정 일 : 2017. 07. 16

The Effect of the Search for Meaning on Subjective Well-Being in Undergraduates and Middle-Aged Adults: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s of Hope and Presence of Meaning

HyunSim Song

SeoungYun Sung

Seoul University of Buddhism

This research aimed to investigate the function of search for meaning and presence of meaning, the two subordinate factors of meaning in life, in Undergraduates and middle-aged adults; specifically, the influences of the search for meaning on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mediated effect of hope and presence of meaning in that process. This study also aimed to verify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meaning, the presence of meaning, and the influence of hope on subjective well-being. Participants included 1,000 individuals, 500 undergraduate students and 500 middle aged adults who completed a survey on meaning in life, hope, and subjective well-being. Regarding mediated pathway, the mediated effect of hope and presence of meaning appeared to be a significant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arch for meaning and subjective well-being. Based on the above result, advanced research,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meaning in life, search for meaning, presence of meaning, hope, subjective well-being